

생태축복원 '장점마을' 마칩표

익산시,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6년간 대장정 해산식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의 생태계를 살려 '치유마을'로 이끈 민관협의회가 6년간의 대장정을 끝을 알렸다.

시는 합라면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로 이뤄진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22일 해산한다고 밝혔다.

합라면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에서 개최된 해산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김승철 민관협의회 위원장과 위원 및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 참여형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된 후 주민 압박령 원인 규명과 주변 환경오염 기초 조사를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해 6년 여간 활동했으며, 이들의 성과는 장점마을을 치유·회복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적극 반영됐다.

특히 합라면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추진방향 수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과 장점마을의 특수성이 복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장점마을은 토지매입비 포함 총 72억원의 사업비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의 생태계를 살려 '치유마을'로 이끈 민관협의회가 6년간의 대장정을 끝을 알렸다.

를 투입해 구금강농산 주변 부지에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및 동식물 서식처 복원 생태시설물 조성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 사고를 극복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한 정현을 시장과 김수홍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승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내 고장 피해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참여한 이후 민관협의회 활동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감개무량하다"며 "우리 마을주민들의 아픔을 조

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더욱 더 뜻 깊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수달 등 자연생태 서식처로 변모되는 등 장점마을이 다시 친환경 마을로 옛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민관협의회와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며 "오늘 민관협의회가 해산하지만 그간의 노고와 노력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점마을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올해 실시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24년까지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철회하라"

익산시의회, 소길영 시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는 22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수량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신동진 벼는 수확량이 많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신동진 벼보다 수확량이 많은 참동진 벼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은 퇴출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길영 의원은 익산 NH 신동진 쌀은 201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전북 우수 브랜드 쌀에 선발되며 품질을 인정받아 최근에야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수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

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진벼의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20여 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짓밟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투입된 예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개월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지재매입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 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해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지방재정을 전년 상반기 보다 533억원 확대 집행하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신속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가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개최됐다.

시는 공적예산의 조기투입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중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상반기 신속집행액은 전체 대상액 9,058억원의 60.5% 수준인 5,478억원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925억원에 비해 553억원 많은 수치다.

18일 기준 집행액은 대상액 대비 20.7%(인 1,873억원)으로 순항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본격 추진

군산시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인정사업이다. 국비 50억, 도비 18억 포함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21년 12월 운영자와 설계자 선정 이후 22년 1월 설계용역 착수해 기본설계보고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본격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시민문화회관은 문화공간과 수익공간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연장(메인홀)과 전시장(시민홀)은 문화공간, 로비카페와 레스토랑, 로컬샵 등은 수익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소풍 활동거점시설이 되어 친체된 이웃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업체 모집

군산시, 마른김·조미김 등 세계적인 수산식품 수출단지로 육성·고부가가치화 본격추진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내 8만평 규모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수산식품단지)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민간기업 입주희망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희망업체 모집은 토지분양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단지배치, 입주(투자)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업체(기관, 단체 등)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시 수산식품정책과에(☎063)454-3034) 입주사업제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업종적정성과 사업계획 등 입주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기본관리계획 수립에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분양계약체결 등 입주(건립)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수산식품 가공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해수(海水)를 인근 비응도 해상으로부터 일일 약 3만톤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해수인매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와 시 속원 사업인 마른김 및 조미김 가공공장 설립과 해조류 종묘배양장 설립에 큰 강점을 보이고, 산업단지 내에 청정해수와 담수가 동시 공급이 가능해 지역 내 해수를 활용한 고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 세부사항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품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해수(海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이며 다만, 염료, 피혁, 도축업종, 지정약취물·특정 대기 유해물질 등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업종이나, 고차기공이 없는 원물위주의 수산물 가공공장은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수요 조사에 발맞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수산식품산업 먹거리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단지 내 해양수산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수산가공 지원센터(약 430억원 규모)'를 건립해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위시장 개척 등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수산업 발전방안을 발굴해 수산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소상공인도 로컬푸드 입점기회 제공해야"

익산시의회, 김미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판매 기회를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에 입점토록 하자는 취지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선 의원은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운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익산시의 정책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와 정책 수혜의 폭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익산시의 효과적

경제 살리기의 일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로컬푸드 입점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라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산품 이외에 부족한 물품은 일반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장을 두 번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게 된다"며 "농산품을 활용한 공산품 품목 수를 늘려서 일반 마트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판매장을 마련한다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농민들의 로컬푸드와 소상공인의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게 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로컬푸드직거래 장터로 지역경제 살리기 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22년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위촉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2일 시의회는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5년, 사 선거구)을 선

임했으며,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회계공직자), 김성수(회계공직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